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막바지 진통

이사회 구성·경영책임 등 이견

현대차, 2대 주주로 1300억 투자
광주시, 시민·수익 구조 등 고려
오늘 예정이던 투자 협약식 연기

합작법인 방식으로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협상에서 세부적인 내용 합의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경영책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장치와 지역사회 공감대 마련 등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19일 할 예정이었던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을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합작법인 이사회 구성, 경영책임 부담, 위탁 생산 차량 가격 등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12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당장 임금 하향 평준화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는 노조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에 자동차 생산을 위탁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새 합작법인에 2대 주주로 참여해 전체 투자금액의 19%가량인 약 13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서 1천cc 미만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차는 또 최근 '레오니스'라는 이름의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 이름이 앞으로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경형 SUV의 모델명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차가 광주공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현재 국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을 위탁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반값 연봉 근로자의 위탁생산으로 기존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생산 중인 차종이 아니어도 노사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조의 반발을 잘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사업성 분석과 이사회 운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광주시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마련, 위탁생산 방식의 수익 구조 정착, 기업적 마인드와 공공성을 동시에 가진 합작법인의 성공적 운영 등 과제가 많다.

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정중제 행정부 시장을 단장하는 하는 협상단을 꾸려 현대자동차와 매주 3차례 만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냈다.

그동안 위탁 생산하게 될 차량 품목과 규모, 생산 방식, 이사회 구성,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미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의향서 제출 전부터 합작법인 설립과 차량 생산 방식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광주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을 하기로 예고까지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대주주로 함께 참여하는 합작법인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돌출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녹색물결 일렁이는 **차밭**

관광농차수도보성에서 녹차체험이 한창이다. 지난 16일 보성군 보림제다 농원에서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서명주 지부장) 회원 50여명이 차밭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문성환 기자 m8527188@



먹거리 풍부한 **'다향울림촌 감자축제'**

전국최대 감자 주산지 보성군 회천면에서 감자축제가 열렸다. 지난 16일 회천면 다향울림촌 광장에서 김철우 민선7기 보성군수 당선인과 김영희 감자축제 추진위원장이 관광객들과 함께 감자요리 부스를 찾아 음식을 맛보고 있다. 수미 품종은 찜서먹는 간식용으로 식감이 포근포근 하여 건강식품으로 최고로 손꼽힌다. 철분, 칼슘, 마그네슘, 무기성분과 비타민 등을 골고루 함유하여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웰빙 기호식품이다. /문성환 기자

무등산 국립공원, '2000만' 탐방객이 찾다

국립공원 승격 5년만에 돌파

안내표지판 856개 신설 등 정비

지난 2013년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 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누적된 무등산 탐방객 수는 2000만2914명이다.

국립공원 승격 원년에는 396만8497명, 2014년 381만8275명, 2015년 360만9717명을 기록했다.

2016년 357만1712명, 지난해 351만3576명,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152만1137명이 무등산을 찾았다.

연간 350만명 이상이 꾸준히 무등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무등산 탐방객 수는 한려해상(715만명), 북한산(595만명), 설악산(369만명)에 이어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정상 정복형 수직 탐방에 쏠린 등산습관을 저지대 수평 탐방 등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프로그



무등산 탐방객

램을 운영 중이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안내표지판 856개를 새로 설치하고, 재해문자 전광판을 4곳에 구축했다.

증심·정풍·만연 등 탐방지원센터 9곳을 운영하며, 58종 536개 응급처치 및 구조장비를 비축했다.

쾌적한 탐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10곳을 신축하고 8곳을 정비해 모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 81억8천900만원을 투입, 전체 탐

방로 165km 63개 노선 가운데 50.7km 43개 노선을 정비했다.

1988년 전남 영암 월출산 이후 25년 만인 2013년 3월 4일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높이에 4012종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걸맞은 품격과 위상,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j@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준비 기획단 구성

총무·정책·공보 등 취임 준비 총괄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7기 전남도지사 취임준비 기획단' 구성을 마쳤다.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대신 도정 현안 점검과 공약 구체화, 취임준비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취임준비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 단장은 제12대 전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진철 동신대 교수가 맡아 총무, 정책, 공보 등 10여명의 실무진과 함께 취임 준비 전반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당선인을 지원 및 보좌한다.

지방행정과 농업·수산, 문화·관광과 신재생에너지·R&D, 도시계획·환경, 복지·여성, 해양·조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온 17명이 위촉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완식, 김철신 전 전남도의장은 자문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김 당선자는 "취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철저히 일하는 기구로 구성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가 분들을 모셨다"며 "도정 업무보고 자리에는 자문위원들 외에 각 분야별 관련 단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셔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기에 더해 도정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광주 북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 3.6억 확보

광주 북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돼, 국비 3억596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멀티인재 양성 프로젝트', '무등산 자락 힐링캠 조성'과 '농상생 커뮤니티 일자리 프로젝트' 등이다.

지난 3월 1차 공모사업 선정까지 더하면 북구는 총 10억5천4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북구는 6월중 광주고용노동청과 수행

기관인 동강·조선대 산학협력단, 빛고을 행복마을경제문화공동체 등 3개 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봉태영 기자

전남도의회

26일 의정활동 마무리

전남도의회가 오는 19~26일 임시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전남지사가 제출한 전국 최초 '전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을 처리한다.

의원들은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도 보고받는다.

임명규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지난 4년간 도민 대변자로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썼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는 더욱 성숙한 지방분권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